

## 독도탐구 대작전

접 수 번 호	
학 교 명	흥진중학교
동아리(팀)명	독도리도마뱀

## 1. 우리 동아리(팀) 소개하기

### ○ 동아리(팀)명 소개

안녕하세요? 저희는 흥진중학교의 독도체험 발표대회 팀인 '독도리도마뱀'이라고 합니다. 독도리도마뱀이라는 동물을 떠올리며 독도리도마뱀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독도리도마뱀은 위협을 느낄 때 목주름을 펴서 적을 위협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꼬리로 바닥을 쳐서 적을 위협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적에게 굴복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냅니다. 그런 이유로 장애인 올림픽의 마스코트(lizzle)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독도리도마뱀의 끈기와 용기를 본받아서 아무리 일본이 우리나라에게서 독도를 빼앗으려 해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맞서겠습니다.

저희가 팀을 결성하게 된 이유도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에 관한 뉴스 기사를 보며, 우리가 먼저 독도를 제대로 알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만 소중한 독도를 지킬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독도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독도를 꼭 지켜내겠습니다.

### ○ 동아리(팀) 구성원 ※ 동아리(팀) 구성원 변경 시 변경 전·후 명시하여 표기할 것

순번	성명	학년	동아리(팀) 내 역할
1	오세준	2	팀 총괄
2	김민재	2	활동 계획 수립
3	우현정	2	정보수집 및 분석
4	이승기	2	영상 편집 및 결과물 제작

## 2. 독도체험 활동 소개하기

### ○ 활동 주제 : 독도탐구 대작전

#### - 주제 선정 이유 :

우리나라에서 가장먼저 해가 뜨는 곳 독도!, 현재 독도는 일본 제국주의에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우리의 독도를 한반도기안에 넣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림픽 위원회는 독도를 넣지 못하게 한 이유가 독도가 분쟁 지역이란 이유에서 라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이유에 대하여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닌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번 2018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에도 한반도기안

에 독도를 넣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독도를 분쟁 중인 지역으로 남겨두어야 하는걸까요? 우리의 소중한 영토, 독도는 왜 국제적으로 다케시마나 리앙쿠르 라고 불리는 걸까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조선시대에 안용복 이라는 어부가 당당히 일본에 가서 독도는 조선의 땅이라는 문서를 가지고 왔음을 아는데 도대체 왜 세계는 독도를 일본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600년경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 장군이 나무 짐승을 이용하여 우산국을 토벌하고 신라의 영토로 복속하였고 일본인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아는데 왜 일본은 아직도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알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일본인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일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합니다. 일본인들은 1970년대 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독도 밑에서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일본은 근거로 포츠담 선언문을 제시하였는데 포츠담 선언이란 일본의 항복과 조선의 독립을 명시한 선언문으로서 대부분 제 2차 세계대전 종결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일본의 영토를 제안하는데 포츠담 선언에서의 '일본의 영토는 혼슈, 규슈, 시코쿠, 홋카이도로 하고 제주도,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한다' 라고 했다. 여기서 일본은 울릉도만 일본의 영토가 아니니 결국에는 독도는 일본의 영토인게 아니인가?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박은 다릅니다. 포츠담 선언에는 울릉도와 제주도만 적어놨으니 그러면 거제도나 마라도, 연평도 같은 섬은 아직도 일본의 영토인가? 일본이 나머지 영토만 쏙 빼놓고 독도만 일본의 땅이라고 하면 일본은 단지 독도를 경제적인 목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입니다. 결론부터 바로 말하자면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맞습니다. 우리의 역사책 세종실록과 지리지 보면 날씨가 맑은 날 우산과 무릉이 보인다고 기록되어있습니다. 우산은 울릉도의 옛 이름이고 무릉은 독도의 옛 이름입니다. 옛날에도 독도와 울릉도가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으면 독도를 세종 때부터 우리의 영토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기록에서도 독도는 일찍이 조선의 영토로 나와 있다. 일본의 태정관 기록에서도 일본은 일찍이 독도를 조선의 땅이라고 인정하거 있었다. 우리나라가 짧게나 대한제국 이었을 때도 독도에 관한 관심은 꺼지지 않았습니. 고종황제께서는 우리의 독도의 나무가 일본에게 벌목당하는 사실을 전해 들으시고는 대한제국칙령 제 41호를 통하여서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셨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아서 독도를 러일 전쟁에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가 일본에 것 이라고 요구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부정하는 것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다시금 부활시키려고 하는 의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일본 제국주의의 그림자를 물리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독도 체험 발표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우리가 100일 동안 독도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활동 기간** : 2018년 4월 ~ 7월

○ **추진 방법** : 독도체험관 방문을 통한 독도 탐구, 학교내 토의, 교내 신문에 독도 알리기, 청와대 국민청원 글 올리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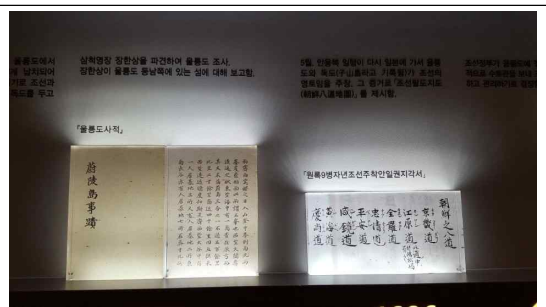
○ **활동 내용(자유롭게 기재하시오.)**

독도 사랑 실천을 위하여 '독도리도마뱀'팀은

첫째, 저희가 솔선수범하여 독도에 관해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방법이 좋을지 정확히 알지 못하여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인터넷 강의도 듣고 다양한 서적들도 읽어보며 서로 지식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끼리의 지식은 너무 알아 다른 또래친구들과 다름이 없어 큰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독도체험관'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자료들과 체험할 거리로 흥미를 느꼈고 그렇게 독도체험관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독도체험관에서 강의를 듣는 저희 팀의 모습입니다.



해설자분과 한 팀이 되어 독도체험관의 구석구석까지 놓치지 않고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처음으로는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서적들에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국사기부터 고려사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팔도총도 등의 서적에서 많은 내용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서적관련 사진입니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서적들을 보고 난 뒤에는 독도의 수호자 안용복선생님의 업적을 들었습니다. 노비출신이었던 안용복 선생님의 겹 없는 여정들과 일본의 항복의사가 담긴 지도와 문서들, 현재까지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거 하는 자료로 큰 역할을 다해주고 있지요. 안용복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일본이 우리 독도를 이미 빼앗아가지는 않았을까 할 정도로 많은 업적을 보니 더욱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연표와 지도 관련 부분을 깊게 배웠습니다. 1940년대부터 현재까지 독도를 지킨 사람들과 많은 이장님. 연표를 통해보니 더욱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아래는 사진과 함께 연표가 나열되어있는 벽 한 칸의 사진입니다.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증명하는 지도들도 참 많았습니다. 한국전도부터 영국해도, 그리고 일본이 인정한 지도 대일본헌전도. 그 지도들을 보며 참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는 정확한 증거도 어떠한 증명할 거리조차도 없는데 대체 어떤 이유로 우리가 이런 의심을 받고 비난을 받아야하는지 억울할 따름이었습니다.

아래는 정말 많은 지도 자료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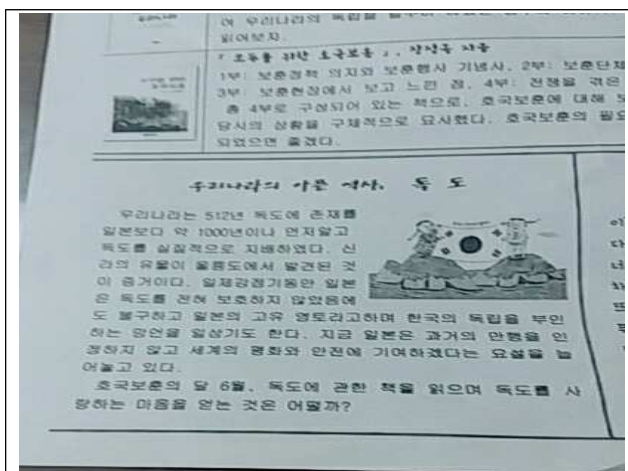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한일 관계와 독도. 이 부분은 해설자분의 설명에서도 억울함과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저희 또한 분통이 터져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독도가 자기네 땅임이 아님을 강력히 인정하는 주장과 근거자료들이 많았습니다만 점차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한 일본의 속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일본제국주의 시대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여 발악하는 행동이라는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을 때는 당장이라도 찾아가고 싶은 맘이었습니다.

저희는 독도체험관에 가서 화가 났습니다. 일본의 실체를 알고 나서 충격적인 것은 사실이나,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태껏 우리가 이렇게 독도문제에 무심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잘못을. 그래서 더욱 다짐했습니다. 독도를 더욱 알려야겠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이것입니다.



둘째, 독도에 대해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흥진중학교 신문인 흥진독서신문에 연재하기. 저희는 독도를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있지만 모르는척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힘을 내서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지편 집부와 토의를 통해 신문에 우리가 쓴 글을 내보낼 수 있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희는 작게나마 신문에 글을 실어 보냈습니다.



셋째, 월요일마다 학교도서관에서 독도관련 회의를 하다 보니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과의 마찰을 원하지 않아, 조용한 외교를 하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눈치를 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조용한 외교보다는 이제는 일본정부가 더 이상의 억지 주장을 펼치지 못하도록 과감한 외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 료 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활동 보고서	보고서	독도사랑을 주제로 한 독도체험 발표대회 보고서
2	활동 요약서	요약서	활동 내용에 대한 요약
3	영상	파일	활동 과정을 담은 영상물

## 3. 성과 및 향후 계획

### ○ 활동 성과

수많은 지도들과 일제강점기가 끝난 후에도 돌아오지 않는 독도를 보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독도를 침략하려는 일본에 맞서 이겨야 합니다. 독도를 빼앗기는 것은 일본제국 주위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독도문제에 집중해야합니다. 정신없는 국제 정세에 일본은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 초등학생교과서에 자랑스럽게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표기하고 가르치는 일본에 우리는 당당히 맞서야합니다. 그리고 승리해야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지켜왔던 독도를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독도는 512년 삼국시대 때부터 신라 이사부가 독도를 정벌하여 1982년 쯤 우리나라가 천연기념물로 등록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독도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독도 프로젝트를 안했더라면 조상들의 성과 또한 그림에 떡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우리 이 넷의 학생들의 독도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았다. 마침 이 학생들을 위해서 독도 프로젝트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넷은 하나가 되어서 독도를 알리는 데에 열심히 노력을 하기 위해서 독도 프로젝트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처럼 독도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져준다면 우리나라 독도는 수많은 학생들이 알게 되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 ○ 향후 계획

팀원들과 함께 독도에 관하여 알던 지식을 향상시키고, 공유하고 무엇이든 나누니 즐거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빼앗아가고 제국주의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일본의 야욕을 저지해야 한다고 팀원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말했습니다. 또한 단지 모든 학생들로만 독도를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연령층들에게 독도의 역사, 위치, 기후, 동식물, 독도에 대한 일본의 기록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 활동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동쪽 끝 섬 독도! 독도는 지금 크나큰 위기에 봉착하여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소중한 섬 독도를 유산으로 물려주어 우리의 후손들이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게 해주시다!

## 4. 독도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팀)원	느 낀 점
오세준	독도에 관한 이슈, 동.식물을 탐구하며 마치 독도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고, 독도를 지켜야 한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됨.
김민재	활동 계획을 수립하며 독도의 지형과 기후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어 유익했음.
우현정	독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 독도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친구들과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의미있었음.
이승기	영상을 만들며 독도를 홍보할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세계인들에게 독도를 홍보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됨.

## 5. 건의사항

○ 우리나라는 현재 2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동북아시아의 제 역할을 찾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못하다. 앞으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협력하여 함께 독도를 방문하여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알리기를 건의합니다.